

LG화학, ABS 생산 100만톤 시대

3세대휴대전화 · LCD모니터 · 에어컨 집중육성 ... 초고가 화장품도

LG그룹이 ABS와 화장품 및 전자제품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LG전자는 2007년 판매량 1000만대 이상 제품을 에어컨에서 평판TV, 초콜릿폰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판매량 1000만대 이상인 <텐 밀리언셀러> 제품을 2006년 에어컨 1개에서 2007년에는 초콜릿폰, 3세대 휴대전화, 평판TV, LCD모니터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마케팅 조직을 제품 중심에서 지역별 시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2007년 목표치 7600만대 중 26%인 2000만대를 초콜릿폰(1000만대)과 3세대 휴대전화(1000만대)에서 달성하기로 했다.

초콜릿폰은 2006년 80개국에서 2007년 120여개국으로 확대 공급하고, 3세대 휴대전화는 허치슨, 보다폰, 오렌지 등 세계 유수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공급을 늘려 각각 1000만대 판매를 달성할 계획이다.

2006년 600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평판TV는 2007년 LCD TV 800만대, PDP TV 250만대 등 1050만대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 2006년 900만대를 판매한 LCD모니터 또한 2007년에는 해외 공항과 호텔 등 공공장소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1400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7년 연속 세계시장 1위를 달성한 에어컨은 2007년 1400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LG생활건강은 2007년 출시한 화장품 <후 환유고 크림>(68만원)이 초고가(50만원 이상) 화장품 시장에서 최근 처음으로 판매량이 1만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1년도 안돼 매출이 1만개를 돌파한 것은 40대 이상 중년 여성을 타겟으로 개발에서 마케팅, 판매,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철저히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LG화학은 2006년 9월 증설한 중국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플랜트가 최근 본격 가동됨에 따라 국내 55만톤, 중국 45만톤 등 생산량 100만톤 시대를 열게 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20>